

## 『대한민국 천군만마』 부산역 앞 광장에서 이재명 지지선언

- 부동시(不同視) 조작 병역기피 후보 사퇴 촉구
- 범국민 인터넷 SNS 1천만명 서명운동 개시

- <대한민국 천군만마>(사무총장 서남열) 회원대표 10여 명은 5일 오후 3시에 부산역 광장에서 대한민국 천군만마 출정 유세를 통해, 20대 대통령 후보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스마트 안보 대통령’의 최적임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인정하고 지지를 선언했다고 민주당 선대위가 밝혔다.
- 특히, 대한민국 천군만마 회원 일동은 ‘부동시(不同視) 조작 병역기피 후보 사퇴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SNS 인터넷 구글폼을 통해 부동시 조작 병역면탈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1천만 국민서명 운동을 5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천군만마는 신성한 국방의무를 완수한 예비역 장병 연합단체로 민홍철 현 국회 국방위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김병주 현 국회의원,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 이철휘, 황인곤 예비역 육군대장, 모종화 전병무청장, 서남열 현 천군만마 사무총장, 김진수 현 병장전우회 회장 등 예비역 장병들이 주축이 되어 참여하고 있다.
- 대한민국 천군만마는 지난 2월 1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예비역 장병 3,000인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2월 24일 광주전남지역 출정 유세 및 대한민국병장전우회(회장) 1,500인 지지 선언, 3월 2일 국회의사당 앞 예비역 장병 70,000인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등을 주도해 오고 있다. (끝)

## 부동산 조작 병역면제 후보 사퇴 촉구 성명서

부동산 조작 병역기피자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다!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검사를 다시 받거나 즉각 후보를 사퇴하라

윤석열 후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동산으로 병역을 면탈했다.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인물이 국민이 제기하는 병역기피 의혹에 응답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시간 끌기에 매달리고 있다. 그가 소명이나 해명을 회피하고 사실 관계를 얼버무리는 것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천군만마(사무총장 서남열)는 부동산 조작 병역기피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천군만마는 성명 발표와 동시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1천만 국민 서명운동에 착수한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징집대상자 윤석열은 1982년 입영 신체검사에서는 좌우 시력차가 0.7로 나타났으나, 1994년도와 2002년도의 공무원(검사임용) 신체검사에서는 각각 0.2와 0.3으로 줄어든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군에 입대하기 위한 입영 신체검사 때는 부동산였고, 검사로 임용될 때는 부동산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 났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어떠한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조작된 시력에 의한 병역기피는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기망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다. 즉각 공정한 부동산 재검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아니면, 병역기피를 인정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병역기피 의혹은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준엄하게 경고한다.

2022년 3월 5일

대한민국 천군만마 대표 일동